

현내면

현내면은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16개리 8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90,24km²이며, 북위 38° 30' 00"을 기준으로 대진리 앞바다에 어로운계선이 지나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소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진리, 철통리, 죽정리, 산학리, 화곡리, 마달리, 마차진리, 명파리, 배봉리, 제진리, 사천리, 검장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현내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최대수 중대장 보국훈장 광복장

향토예비군 육성 통해 국가발전 기여 ... 현역·예비군 포함 40년 군생활

현내면 향토예비군중대 최대수 전 중대장(60세)이 지난해 12월31일 8군단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고, 25년간 향토예비군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상했다.

최대수 전 중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비군부대로 불우 이웃 거주지 지붕개량 사업 일손 돕기 등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민·관 유대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투철한 안보교육을 통해 예비군들에게 안보의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으며, 향토 방위작전 수행체계 확립에도 기여했다.

최 전 중대장은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동원을 위한 평시 준비체계 확립, 주민신고 홍보 활동 및 지역내 향토예비군과의 유대관계 개선, 방위지원본부 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 왔다.

평소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그는 신앙심 또한 깊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최 전 중대장은 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9개월 뒤에 3사관학교에 입학해 소위로 임관한 뒤 16년5개월간 군생활을 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어 24년 9개월 동안 현내면예비군중대장을 맡는 등 총 40년 4개월간을 군에 몸 담았다.



현내면향토예비군중대 최대수 전 중대장이 향토예비군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보국훈장 광복장을 들여보이고 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그는 “국가에 대한 보답 또한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내 봉사활동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대수씨는 제2의 고향인 현내면에 대해 자긍심과 자랑이 대단해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새해 1월1일부터 신임 현내면

예비군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고향민 중대장(47세)은 “최대수 중대장의 뒤를 이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현내면 예비군중대장으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토방위작전 및 지역주민과 융화된 민·관·군 통합방위, 향토 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청년협의회 박승로씨 5대 회장에 재추대

현내면 죽정리에 서 박포수가든을 운영하는 박승로씨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청년협의회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청년협의회는 지난 20일 춘천시 소재 자유총연맹 도지회 자유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씨를 제5대 회장으로 재추대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에 이어 2011년도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현내FC 축구회 2011년 정기총회 개최



현내FC 축구회(회장 하용준)는 지난 15일 오후 금강산콘도 소연회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내FC 축구회(회장 하용준)는 지난 15일 오후 금강산콘도 소연회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구연(56세), 박승로(49세)씨가 새 감사로 선출됐다. 감사 임기는 2년이다.

박승근 기자



지난 13일 금강산콘도 금강홀에서 열린 대진가족한마음축제에서 원생들이 재롱을 부리고 있다.

“작은 천사들의 재롱잔치”

대진어린이집 ‘대진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서며 몸과 마음에 서늘함이 느껴지는 때, 대진어린이집에서는 작은 천사들의 축제인 ‘대진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지난 13일 금강산콘도 금강홀에서 ‘꿈을 드립니다. 희망을 드립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따뜻함과 훈훈함을 나누기 위해 대진어린이집 가족 및 지역주민을 모시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솜씨를 뽐낼 만큼 크게 크게 자란 작은 천사들에게, 대진어린이집 가족 및 지역주민 모두는 힘찬 박수로 격려와 사랑을 보냈다.

대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사랑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사랑과 평안함이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선애 시민기자